

경성의 일본인 극장 변천사*

—식민지도시의 문화와 ‘극장’—

홍 선 영**

(e-mail : hong323@hanmail.net)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경성 일본인 극장의 설립과 변천
 3. 재조 일본인의 문화형성에서 ‘극장’의 의미
 4. 맺음말
-

1. 들어가는 말

극장은 근대성의 산물이다. 근대이전의 연극에서 극장은 반드시 건축물을 필수적인 것으로 하지 않았고, 무대와 관객석에 대한 제약도 없었다. 실제 1900년대 초반 ‘협률사’에 이르러 조선에 극장 건축물이 처음 등장하였다. 이는 조선의 전통연희가 지정된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야희(野戲)’였기 때문이며 따라서 근대이전의 조선은 고정된 건축물 속에서 실현되는 극 전통이 존재하지 않았다¹⁾. 이에 반해 일본에는 근대 이전부터 극장이라는 건축물이 존재해 왔으며 1890년대 도쿄에 신토미좌(新富座), 나카무라좌(中村座), 이치무라좌(市村座), 가부키좌(歌舞伎座) 등의 가부키 극장들은 새롭게 신축하여 근대적 극장으로 재탄생하였다²⁾. 한편 경성에는 1902년부터 1910년 전후의 시기 동안 20여개의 극장이 생겨났다. 이들 극장 가운데 조선인이 설립한 6개의 극장—협

* 본 논문은 한국학술연구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것이다. (과제번호 KRF2008411-J00702)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1) 박노현 「극장의 탄생—1900-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19집, 2004년, p.12-p.13.

2) 後藤慶二 『日本劇場史』 岩波書店, p.51

를사(1902), 광무대(1907), 단성사(1907), 연흥사(1907), 원각사(1908), 장안사(1908)—을 제외한 나머지 16개의 극장은 일본인에 의해 설립되었다³⁾. 본고는 경성의 일본인 극장을 둘러싼 다양한 문화표현의 생성되고 소멸되어가는 과정을 주목함으로써 ‘극장’을 제국 권력의 문화적 파장 가운데 다양한 문화적 역동성이 생성되는 공간으로서 파악하고 제국일본의 문화권력 구현을 둘러싼 핵심적인 근대 미디어로서 경성의 일본인 경영 극장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일본인 배우, 흥행사, 극단에 관한 연구, 공연 레퍼터리 연구, 연극 상연 작품의 텍스트 연구 등 다양한 접근방식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특히 ‘극장’이라는 물리적 공간—건축물로서의 극장—에 국한하여 이를 근대적 미디어의 주요한 부분으로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그런데 식민지시대 재조선 일본인의 문화 연구에서 특히 일본 연극과 일본인 극단 및 일본인 경영 극장과 관련한 연구 즉, 누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연극을 보여주었는가, 관객이 어떻게 연극을 향유하였는가 라는 역사에 대한 규명은 매우 소극적이었다⁴⁾. 또한 일본 국내에서 최근 식민지 문화 형성의 실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조선 일본인들의 연극을 비롯한 문화적 영위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최근 재조일본인의 역사 연구자 다카사키 소지는 일본의 조선 침략과 식민지 지배는 정치가와 군인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름 모르는 사람들의 ‘풀뿌리 침략’을 통해 유지되고 지탱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⁵⁾. 다카사키가 언급한 ‘풀뿌리 지배’는 문화적 영역에서 보다 극명하게 나타나며 그것의 문화적 파급력은 보다 심층적이다. 따라서 식민지 도시 ‘경성’의 문화적·물적 기반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연극장, 활동사진관, 요세(奇席)를 비롯한 극장 전반에 대한 연구는 매우 시급하다. 아울러 극장이라는 공간을 식민지 문화의 ‘왜곡성’을 증명하는 흔적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도시의 ‘극장’이라는 특수한 문화적 복합성을 배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것의 역사적 맥락의 중요성과 문화사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2. 경성 일본인 극장의 설립과 변천

3) 홍선영 「1910년 전후 서울에서 활동한 일본인 연극과 극장」 (『일본학보』 56/2, 2003년), p.244-p.252

4) 유민영 『한국근대극장변천사』 (1998)에서는 한국 근대연극과 관련한 언급에 그침. 木村健二 『在朝日本人の社会史』 (未来社, 1989). 참고 「1910년 전후 서울에서 활동한 일본인 연극과 극장」 (『일본학보』 56/2, 2003년). 참고 「일본어신문 『朝鮮時報』와 『釜山日報』의 문예란 연구-1914년-1916년-」 (『일본학보』 57/2, 2003년), 박노홍 「한국극장사」 (김의경, 유인경 편 『박노홍의 대중연예사』 1, 연극과 인간, 2008), p.150

5) 다카사키 소지 저, 박규수 역 『식민지조선의 일본인들』 역사비평사, 2006년. p.3

2-1. 경성의 ‘신도래자’와 일본인 극장

가와바타 겐타로(川端源太郎)가 쓴 『경성과 내지인(京城と内地人)』(1910년)의 발간을 축하하며 당시 경성거류민단장이던 후루키(古城菅堂)가 쓴 서문의 일부를 먼저 인용한다. 조선에 오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경성을 소개하는 글이다.

생각컨대 경성의 연혁은 조선에서의 일본 세력팽창의 성패를 의미하므로 경성의 과거를 되짚어보고 또 경성의 현재를 아는 것은 우리 동포들에게 무한한 감흥을 주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많은 신도래자(新渡來者)들에게 교훈을 주고 각오를 촉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친구 가와바타 겐타로(川端源太郎) 군이 최근 한 권의 책을 펴냈는데 『경성과 내지인』이라고 한다. 이 책의 의의는 경성의 내지인과 관련한 과거의 역사를 전달하고 또한 현재의 상황을 알려 신도래자(新渡來者)에게 참고로 삼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⁶⁾

식민지 도시 경성의 역사가 곧 “일본 세력팽창의 성패”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재조선 일본인의 심성을 짐작케 하는데 이와 같은 1900년대에 이미 조선으로 도향한 ‘도래자’가 ‘신도래자(新渡來者)’들에게 전하는 경성 안내서에는 반드시 경성의 문화 상황을 전하고 또 빠짐없이 극장과 관련한 상세한 안내를 찾아볼 수 있다. 즉, 경성 일본인 극장의 설립은 재조일본인 거류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한국병합 당시(1910년)의 경성의 일본인 인구를 보면⁷⁾, 약 4만 5천 여 명이 거주하였는데 이들 가운데 1910년 이전부터 경성에서 극장, 요세 관련 종사자와 배우가 살고 있었다는 당시의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다⁹⁾. 또 이 시기 일본인의 해외 거주 인구 가운데 가장 압도적인 숫자를

6) 경성거류민단장 후루키(古城菅堂) 「서문」, 川端源太郎 『京城と内地人』 일한서방, 1910년, p.239-p.240.

7) 1885년 88명, 1895년 1839명, 1906년 11,724명, 1910년 34,468명이었다. 靑柳南冥 『新撰京城案内』 京城朝鮮研究会, 1913년. p.266-p.268. 용산을 포함한 경성에 거주하는 인구가 약 4만 5천 여명, 그리고 이는 공식 기록에 의한 것이며 실제 일시적인 유동인구(일시적인 체류자 등)까지 포함하면 1.5배 가까이 될 것이다.

8) 용산에 거주한 일본인은 10,638명이었다. 川端源太郎 『京城と内地人』 日韓書房, 1910년. p.327. 이 책의 서문은 경성거류민단의 단장인 후루키(古城菅堂)와 경성일본인상업회의소 회장 야마구치(山口太兵衛)가 썼다. 총 243쪽 분량의 책으로써 일본어로 기록된 경성의 일본인 거류지와 관련한 초기의 기록이다.

9) 1909년 현재 극장 관련 일에 종사하는 가구 수 3, 인구 8, 요세관련 종사 가구 수 2, 인구 9이며, 배우는 가구 수 1, 인구 10으로 되어 있다. 川端源太郎 『京城と内地人』 일한서방, 1910년 p.333, 참조. 뿐 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발간된 『경성발달사(京城發達史)』(경성거류민단역소(京城居留民団役所), 1912년). 서문은 당시 경성거류민단의 단장인 후루키(古城菅堂)와 경성발달사편찬 ‘축탁’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지’를 넘어 해외로 팽창하고자 했던 ‘제국’의 역사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당시 조선으로 건너온 일본인들의 대다수는 ‘신천지 조선’에 운을 건 일본의 하층민이었다고 한다¹⁰⁾. 그리고 조선 내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그들 내부에서 상층과 하층의 차이가 극심하여 계층적 갈등으로 인한 소외의식과 함께 ‘제국’의 식민자라는 왜곡된 문화적 우월의식이 공존함으로써 그들의 문화적 영역의 활동에서도 매우 중층적이고 복잡한 성격을 띠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에 도향한 재조일본인의 문화적 영위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극장’건설이었다.

경성의 일본인 극장 설립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동시기 일본에서의 극장 상황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성의 일본인극장사는 도쿄 도시의 극장 설립사와 궤를 같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도쿄의 경우는 대략 1890년대에 신토미좌(新富座, 1878), 나카무라좌(中村座, 1886), 이치무라좌(市村座, 1892), 가부키좌(歌舞伎座, 1889) 등 과거 가부키 극장의 후신으로 새롭게 신축한 근대적 극장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서양극장 이념의 영향을 받은 프로시니엄 무대를 설치한 극장 가와카미좌(川上座)도 1896년 간다(神田)에 신축 등장하였고, 순서양풍 극장건물인 유라쿠좌(有樂座, 1908년)는 객석의 의자가 지정석이였다. 그리고 도쿄에 본격적인 서양식 극장이 탄생하게 되는데 코미디 프랑세즈 건축양식을 본따 건설한 제국극장(1911년)이다. 그 명칭이 ‘제국극장’이지만 국립극장이 아닌 민간자본에 의해서 건설된 극장으로써 일본 극장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제국극장은 상연 레퍼토리가 연극에 국한되지 않고 가극, 연주회 등을 비롯하여 관동대지진으로 인하여 소실되기까지

이라는 위치에 있던 아오야기(靑柳南冥)가 썼으며 경성의 일본인거류민단의 역사를 기술한 책이다. 편찬 및 발행자는 경성거류민단역소(京城居留民団役所), 인쇄소는 일한인쇄주식회사(경성 명치정 소재) 인쇄인은 야마구치(山口竹二郎)이다. 전체 목차를 보면 서설, 거류지발달의 상황, 경제발달의 상황, 일본인상업회의소의 연혁, 교육발달의 상황, 위생기관발전의 상황, 종교발전의 상황, 교통발전의 상황, 용산발전소사, 여록의 순으로 총 제10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총 504쪽의 분량이다. 京城居留民団役所, 『京城發達史』 1912년. p.456-p.460. 경성거류민단은 1906년 8월 2일자 통감부 고지 제76호에 의해 같은 해 8월15일 설립되었고, 용산민단은 1907년 9월 통감부 고지 116호에 의해 같은 달 15일 설립되었으나 1910년6월24일자로 통감부 고지 제130호에 의해 같은 해 7월 5일 양 민단은 통합되었다. 『京城發達史』 (1912년), p.398 참조. 재조일본인 가운데 경성거류민의 직업별 구성에 의하면, 유희장업(遊藝場業) 44 요세(寄席) 2 [계 146종 17,288명] (1909년 현재), 그리고 유희장업 19 흥행사 1 유희가업(遊芸稼業) 44 요세(寄席) 2 [계 146종의 직업 총 17,281명] (1911년6월 현재). 京城居留民団役所, 『京城發達史』 1912년. p.456-p.460, 참조. 다른 기록에는 遊藝場業 19 흥행사 1 遊芸稼業 44로 되어 있다. 靑柳南冥 『新撰京城案内』 京城朝鮮研究会, 1913년. p.289-p.294. 1909년에는 46명, 1911년에는 66명이 극장, 요세 등의 연극, 예능 관련 종사자들이 경성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다카사키 소지 저, 이규수 역 『식민지조선의 일본인들』 역사비평사, 2006. p.115

근대적인 오락의 전당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¹¹⁾. 이러한 일본 내 극장 설립 열기의 배경에는 경성 극장 설립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데, 즉 러일전쟁 후 일본사회에는 ‘일등국’이라는 의식이 팽배해짐과 동시에 예능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것의 구체적인 결과물로서 등장한 것이 ‘제국극장’의 건설이었다. 이와 관련한 당시 기사를 보면 연극개량의 동기를 밝히고 연극개량을 위한 핵심적인 사안으로서 ‘연극장’의 건설을 제안하고 있다.

도쿄 중앙에 일대 연극장을 건축하여 다른 기회에 다시금 외국의 황족, 대통령 등이 내왕하더라도 장소로 인하여 곤란함이 없도록 준비가 되었으면 한다.
(「사설 연극개량의 동기」 『야마토신문』 1906년 2월 28일)¹²⁾

이 기사는 영국 황실의 일본방문당시 가부키좌에 초대하여 공연을 보이는 과정에서 전등설비로 인하여 겪은 해프닝때문에 ‘일등국’다운 대형 연극장의 건설 필요성을 제안하는 내용이다.¹³⁾ 이상에서 언급한 극장들은 연극장이며 1915년 전후 일본의 영화관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이 시기 신축된 대형 상설영화관의 대부분은 서양식 건축이다. 영화관의 선풍기는 입구 부근에 대형 그림간판, 노보리, 호객이 주를 이룬다. 오늘날처럼 영화 포스터를 입구에 나란히 붙이는 것은 그림간판이 제한되고 호객이 금지된 1917년까지는 거의 볼 수 없다. 영화관 외관은 전체적으로 뒤통수한 인상을 준다.

일반 영화관에서는 게타 차림이 많던 시절에 하족제(下足制-신을 벗고 오르는 연극장의 유제)를 하지않고 매트나 카펫을 까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플로어는 검은 흙바닥이 그대로이거나 시멘트바닥이었다. (중략) 연극장에서 바뀐 지방의 영화관은 1930년 즈음까지 의자석이 아닌 하족제의 경사진

11) 菅孝行 「리얼리즘의 의미·차이의 해소·다양화」 『演劇人』 17호(무대예술재단연극인회의, 2004) p.178

12) 「社説演劇改良の動機」 『やまと新聞』 1906년2월28일.

13) 실제 1906년 1월 일본우선(郵船)의 이토 히로부미, 시부사와 에이치, 곤도 렌페, 가토 마사요시, 미쓰이은행의 하야카와 센기치로, 후쿠자와 스테지로(후쿠자와 유키치의 차남), 미쓰비시의 원로 쇼다 헤고로, 오쿠라구미 사장 오쿠라 기하치로, 제국석유와 도부철도 사장 네즈 요시이치로 등의 대자본가들의 ‘금권’에 의해 제국극장 설립을 위한 의기투합이 이루어졌다¹⁾. 그리하여 이들에 의해 12월 ‘제국극장주식회사 발기인대회’가 열렸고 니시노 게노스케가 흥행책임을 맡아 전무이사직에 취임하였으며 제국극장 제국극11년 3월 1흥행개장 ‘금 건축양식은 르네상스풍 프랑스식이금 외관은 흰색 벽돌, 내부와 계단에는 하얀 대리석을 깔았다.지하를 포함해서 5층 건물에 1, 2, 3층의 관객석은 모두 의자로 되었고 정원 1,700명 일본 최초의 철골철근의 본격적인 서양식 극장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雛壇) 다다미석이 적지 않았다. 영화관내 벽은 아무런 장식이 없는 흰 벽, 스크린은 흰 벽이거나 흰 천이었다.¹⁴⁾

그런데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극장은 경성의 일본인 극장 가운데 사실상 연극장에 국한하지 않고 위에서 인용한 ‘활동사진관’을 포함하는 극장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에 연극장의 기본성격에서 연극장과 활동사진상설관, 요세로 크게 나뉘지만, 흥행 내용에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일본인 극장 형성의 초창기부터 그러했다¹⁵⁾. 예를 들어 1932년의 극장흥행 일람표에 의하면, 연극장 1,388(흥행일수) 181,071(입장인원), 활동사진관 543(흥행일수) 214,425(입장인원), 요세 16(흥행일수) 2,199(입장인원)에서 알 수 있듯, 연극장 이외의 활동사진관과 요세에서도 연극흥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¹⁶⁾. 더구나 활동사진관의 경우, 활동사진 흥행의 경우는 3,788(흥행일수) 1,846,383(입장인원)이고, 이보다는 적지만 연극 흥행에서 흥행일수 543일, 입장인원은 연극장보다 많은 21만 여명 인 것이다¹⁷⁾. 이처럼 활동사진관에서 다수의 연극흥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경성 극장의 현황을 언급하기 위하여 먼저 극장의 명칭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극장 명칭이 -극장이라는 식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일본인 경영 극장의 경우 명칭에서도 그 특징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한국인(경영, 혹은 한국인 관객 대상) 극장명이 ‘-사(社)’로 끝나는 명칭이 대부분인 반면, 일본인 극장명의 특징은 ‘-좌(座)’로 끝나고 점차 ‘-관(館)’이 많아졌고 나중에는 ‘—극장’이 일반적이게 되었다. 이는 일본의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시기의 극장명을 보더라도 동일하다. 즉, 도쿄의 대표적인 극장을 보면, 가부키좌, 도쿄좌, 이치무라좌, 혼고좌 등에서도 ‘—좌(座)’¹⁸⁾가 일반적일 뿐 만 아니라 유락좌, 수좌, 개성좌 등 같은 명칭의 극장이 경성의 일본인 극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전통적인 연극양식인 가부키 공연을 하던 극장을 ‘-좌(座)’로 부르던 것에서 유래하며, 이와는 달리 1911년 도쿄에 건립된 본격적인 서양식 극장 ‘제국극장(帝國劇場)’은 특별히 ‘극장(劇場)’이라는 새 명칭을 붙이게 되었고, 이후 1924년 신극전문극장으로써 쓰키지소극장

14) 加藤幹郎 『映画館と観客の文化史』中央公論, 2006, p.210-p.211

15) 줄고 「1910년 전후 서울에서 활동한 일본인 연극과 극장」(『일본학보』 56/6/62003년), p.251.

16) 「道別興行一覽表」『朝鮮年鑑』1932年, p.468.

17) 같은 책, p.468.

18)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座란 예능을 전업으로 하는 예인(芸人)이 寺社로부터 독점권을 얻어 조직한 예인집단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에도시대에 닌교조루리와 가부키가 활성화되어 감에 따라 흥행에 막부의 허가가 필요해졌다. 흥행권을 얻은 나다이(名代 なだい)는 극장을 건설하고 극장명에도 座를 붙이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座를 붙인 극장명이 많이 남아있다.

(築地小劇場)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도쿄의 극장시설을 대체로 ‘—극장(劇場)’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전국에 ‘—좌(座)’와 ‘—관(館)’, ‘—극장(劇場)’이 붙는 명칭이 혼재하였으며 이는 현재도 혼용되고 있다. 극장명칭을 둘러싸고 이러한 역사적인 변화과정이 있었다는 점과 함께 경성의 일본인 극장의 또 하나의 특징적인 점은 지명에서의 복잡함이다. 다음 장에서 언급하는 구체적인 극장의 세부 사항에서 지명은 당시 경성에서 쓰였던 일본식 지명을 그대로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본정(本町)은 충무로 일대이며¹⁹⁾ 명치정(明治町)은 명동 일대, 황금정(黃金町)은 을지로, 영락정(永樂町)은 충무로와 을지로 사이로 추정할수 있고 본문에서는 당시의 지명을 그대로 표기하였다.

각 극장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요성격, 개장(관), 소멸, 소재지, 규모, 극장주, 특이사항이라는 7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극장의 주요성격은 연극장, 요세, 활동사진상설관 가운데 특히 중심적인 성격을 기준으로 기술하였다. 개장(관)은 각 연대별로 나누어 개장 혹은 개관 시기를 중심으로 서술하였고, 명칭 변경과 개축, 신축에 대한 부분도 병기하였다. 시기별로 같은 소재지의 극장이 개축을 거치면서 명칭변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 소멸은 극장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없어지는 경우, 그리고 다른 극장명, 다른 성격의 극장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소재지의 경우는 당시 지명으로 기술하였고, 규모는 극장의 수용인원을, 극장주는 대표, 사장, 경영주, 대주주 등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이 남아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극장주로 통일하였다. 끝으로 특이사항은 이상의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기타 사항들을 기술하였다.

2-2. 1910년대 경성의 일본인 극장

(1) 수좌(壽座)

주요성격 연극장

개장(관) 1907년 6월 개축, 8월에 개장²⁰⁾. 1915년 전후까지 남아있음²¹⁾.

소멸 1919년 경성극장(주식회사)으로 바뀜²²⁾.

19) 당시 기록에 1910년대 중반까지 등장하는 수정(壽町), 옥정(旭町)은 본정으로 지명 변경으로 추정된다.

20) 홍선영 「1910년 전후 서울에서 활동한 일본인 연극과 극장」 (『일본학보』 56/2, 2003년)

21) 岡良助 『京城繁昌記』 博文社, 1915년. p.510. 이 책의 저자 오카 료스케(岡良助)는 『京城と内地人』 (1910)의 발행에도 관여한 것을 보인다. (인쇄자로 나옴. 日韓書房)

22) 靑柳綱太郎 『大京城』 朝鮮研究会, 1925년, p.552-p.556. 이 책의 「대경성의 오락기관」에서는 「경성에서 가장 대규모 흥행을 하는 극장은 경성극장이다. 원래 수좌였는데 최근 경영조직이 바뀌어

소재지 본정(本町) 3정목²³⁾ / 수정(壽町)²⁴⁾
 규모 불명
 극장주 후루사코(古迫角次郎) → 사카모토(阪本五市)²⁵⁾
 특이사항 경성에서 가장 오래된 일본인 극장²⁶⁾에 속함.

(2) 수관(壽館)

주요성격 연극장
 개장(관) 1912년 12월 5일²⁷⁾
 소멸 1920년대에는 본정좌(本町座)로 바뀜²⁸⁾.
 소재지 본정(本町) 3정목²⁹⁾, 수정(壽町)³⁰⁾
 규모 정원 약 800명
 극장주 설립당시 후루사코(古迫かつ女), 1913년에 구로가와(黒川初五郎), 1914년에는 가네코(金子專之助)³¹⁾로 경영주가 여러번 바뀌었다.
 특이사항 경성의 상설연예장(定席-원문)으로서 비교적 시설이 완비된 극장으로 알려져 있다³²⁾.

(3) 연기관(演技館)

주요성격 연극장 / 개장(관) 1913년³³⁾ / 소멸 불명
 소재지 황금정(黄金町) 4정목 / 규모 불명 / 극장주 다무라(田村義次郎)³⁴⁾

주식회사로 되었고 설비가 조선 최고의 대극장으로써 동도(東都)의 유명배우들이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극장에서 초연을 하며 관객도 상류층의 사람들이 다수 입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23) 岡良助『京城繁昌記』博文社, 1915년, p.510.

24) 石原留吉『京城案内』京城協賛会 1915년 p.297

25) 岡良助『京城繁昌記』博文社, 1915년, p.511.

26) 앞의 책, p.511.

27) 앞의 책, p.511

28) 青柳綱太郎『大京城』朝鮮研究会, 1925년, p.555. 본정좌는 이전에 1909년 화재로 소실된 같은 이름의 극장이 있었다. 홍선영 「1910년 전후 서울에서 활동한 일본인 연극과 극장」(『일본학보』 56/2, 2003년) 참조.

29) 岡良助『京城繁昌記』博文社, 1915년, p.512.

30) 『京城日報』1915년 9월 26일 4면, 青柳綱太郎『大京城』朝鮮研究会, 1925년, p.555.

31) 岡良助『京城繁昌記』博文社, 1915년

32) 岡良助『京城繁昌記』博文社, 1915년. p.511.

33) “본 원은 대정 원년(1912) 田村義次郎 씨가 설립하여 동 2년(1913) 1월에 개업하였고”라고 되어 있다. 岡良助『京城繁昌記』博文社, 1915년(p.508) 참조.

34) 1860년 도쿄 출생. 그는 1887년 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장성(大蔵省) 공무원으로써 청일전쟁(1894) 당시 滿洲 각지로 파견되어 경제제정 문제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다. 1895년 오사카(大阪) 중립은행(中立銀行)의 대만지점을 개설하고 국고금 취급 업무로 오사카 중립은행의 대만 지점 총지배인에 선발되었으며 은행합병 사업의 실패로 1896년 사직하였다. 1900년 소에다(添田) 박사의 초청으로 대만은행 창립에 참여 1904년 9월까지 대만에 체재하였다. 그해 1904년 10월 경

특이사항 조선인 박승필(朴承弼)이 경영하는 광무대라는 좌명으로 조선극을 공연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당시 관객은 조선인이었고 흥행내용은 무용과 전통극, 근대극이었다고 한다. 특히 연기관은 황금유원(黃金遊園) 내에 활동사진관 황금관(黃金館)과 함께 있었으며 그 밖에 루나파크라는 놀이공원, 정원, 운동장, 다양한 관람물 등이 모여 있는 현재의 테마파크에 가까운 시설이었다³⁵⁾.

(4) 경성좌(京城座)

주요성격 연극장

개장(관) 1914년 신축, 1915년 경 완공³⁶⁾ / 소멸 불명

소재지 명치정(明治町) 1정목 / 규모 정원 2000명

극장주 사쿠라이(櫻井丈太郎), 히메노(姫野龜吉)³⁷⁾

특이사항 현재로서는 경성좌에 관한 기록이 충분하지 않다.

(5) 어성좌(御成座)

주요성격 연극장

개장(관) 1907년 전후³⁸⁾에 개장하여 1910년 개축.

소멸 남성좌(南成座)로 바뀌어 1935년경까지 존재함³⁹⁾.

소재지 남대문통(南大門通)⁴⁰⁾. 어성정(御成町)⁴¹⁾

규모 400명⁴²⁾ / 극장주 불명

특이사항 1911년 林聖九 중심의 혁신단 일행이 「불효천벌(不孝天罰)」이라는 제목으로 창립 공연을 하였다.

성에 들어와 전당포업을 시작하였는데 부인에게 맡기고 토지가옥 경영(부동산업)을 담당하였다. 경성거류민단의 세제조사위원, 경성거류민단의 민단장을 역임하였다. 1912년 경성의 황금정의 황금유원이라는 테마파크를 설립하는 등 줄곧 조선 실업계의 거물로서 활동하였다. 『실업인명』 106, 『신사명감』 204

35) 황금유원은 황금정에 위치한 놀이공원으로 넓은 공간에 신사와 상점, 음식점, 유희장이 있고 신분에 상관없이 도시와 벽지에서 남녀노소가 찾아와 즐기는 이가 많고 특히 여름의 야간에는 사람들로 북적대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알려져 있다. 岡良助 『京城繁昌記』 博文社, 1915년(p.508) 참조.

36) 岡良助 『京城繁昌記』 博文社, 1915년, p.514

37) 히메야(姫野龜吉)는 1919년 설립한 경성극장(수좌의 후신)의 대주주이기도 했다.

38) 오카 료스케(岡良助)는 어성좌가 수좌와 함께 1907년 전후 경성에 생겨난 극장 가운데 1915년 전후 시기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극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京城繁昌記』 博文社, 1915년(p.510). 홍선영 「1910년 전후 서울에서 활동한 일본인 연극과 극장」 (『일본학보』 56/2, 2003년) 참조.

39) 박노홍 「한국극장사」 (김의경, 유인경 편 『박노홍의 대중연예사1』, 연극과인간, 2008년), p.251 참조.

40) 石原留吉 『京城案内』 京城協賛會 1915년 p.297

41) 『京城日報』 1915년9월2일(3면, 석간).

42) 박노홍 「한국극장사」 (김의경, 유인경 편 『박노홍의 대중연예사1』, 연극과인간, 2008년) p.251.

(6)사쿠라좌(佐久良座)

주요성격 연극장 / 개장(관) 불명 / 소멸 불명

소재지 용산 / 규모 불명 / 극장주 불명

특이사항 1915년 9월 도쿄 신과극단 오에(大江義雄) 일행의 「月魄」이라는 공연이 있었는데 하면⁴³⁾, 가부키 공연⁴⁴⁾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연극장으로써 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7)낭화관(浪花館)

주요성격 요세 / 개장(관) 불명 / 소멸 불명

소재지 명치정(明治町) 소재⁴⁵⁾ / 규모 불명 / 극장주 불명

(8) 황금관(黃金館)

주요성격 활동사진상설관

개장(관) 1913년⁴⁶⁾ / 소멸 불명

소재지 황금정(黃金町) 4정목/규모 불명/ 극장주 하야카와(早川増太郎)

특이사항 황금유원(黃金遊園) 내에 위치하였다. 경영주 하야카와(早川増太郎)가 천연색활동사진주식회사의 조선 독점 대리점으로서 황금관을 근거지로 하여 인천과 그 밖의 조선 각지까지 활로를 개척하였다. 활동사진 변사와 연주단을 선정하고 제반 설비를 세심하게 정비함으로써 관객의 호응이 좋고 만원사례를 기록했다고 전한다⁴⁷⁾.

(9) 대정관(大正館)

주요성격 활동사진상설관

개장(관) 1910년 / 소멸 불명

소재지 앵정정(櫻井町) 1정목⁴⁸⁾ / 규모 정원 1200명

극장주 니이다(新田耕市)⁴⁹⁾, 오카모토 세이지로(岡本清次郎)의 부친⁵⁰⁾

특이사항 제1대정관이라고도 한다. 전속기관으로써 연예부(演藝部)가 있었다.

43) 『京城日報』 1915년9월2일(3면, 식간)

44) 『京城日報』 1915년9월2일(3면, 식간). 大阪若手歌舞伎俳優大一座

45) 石原留吉 『京城案内』 京城協賛會 1915년 p.297

46) “본 원은 대정 원년(1912) 田村義次郎 씨가 설립하여 동 2년(1913) 1월에 개업하였고”라고 되어 있다. 岡良助 『京城繁昌記』 博文社, 1915년, p.508 참조.

47) 岡良助 『京城繁昌記』 博文社, 1915년. p.508-p.509.

48) 「著名なる劇場及寄席」 石原留吉 『京城案内』 京城協賛會 1915년, p.297.

49) 岡良助 『京城繁昌記』 博文社, 1915년.

50) 박노홍 「한국극장사」, p.252.

황금정 도로 정비에 앞서 극장주 니이다(新田耕市)가 이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여 크게 이익을 얻었고 이러한 때를 적절하게 만나 1910년 활동사진 전문상설관인 제1대정관을 설립하게 된다. 2층 건물로 건물 면적 총 2백 여평에 흡연실과 식당, 화장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경축일등에는 주야로 개관하여 황금정 번영에 기여하였다. 니이다(新田耕市)는 세계관을 동시에 경영하여 부속기관으로서 연예부가 있으며 직원 50여명을 두어 두 관을 관리하였다⁵¹⁾.

(10) 세계관(世界館)

주요성격 활동사진상설관

개장(관) 1915년 3월 / 소멸 불명

소재지 황금정(黃金町) 2정목⁵²⁾

규모 1200명 / 극장주 이다(新田耕市)

특이사항 제2대정관이라고도 한다. 고등연예관(1910년전후)에서 세계관(1915)으로 개칭되었다. 고등연예관을 극장주 니이다(新田耕市)가 매입하여 제2대정관으로 개칭하고 애초에 조선인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극장이었다가 황금정이 정비된 이후에는 1915년 3월 이후에는 일본인 관객을 중심으로 하는 극장으로 바뀌었다. 총 건면적은 150 여 평으로 제1대정관에 비견하는 성황을 보였다⁵³⁾. 연예관 준공기 연예관은 오는 5일까지 준공하기에 이르러 7일부터 경성호텔에서 연습중인 나가우타(長唄)와 기타 시연을 한다고 한다.⁵⁴⁾

(11) 유락관(有樂館)

주요성격 활동사진상설관

개장(관) 1915년 9월 개장⁵⁵⁾ / 소멸 불명

소재지 本町 1정목 / 규모 불명 / 극장주 불명

특이사항 1915년 9월 26일 신축낙성의 시기에 활동사진 상영과 함께 신파비극 공연에 대한 안내가 있다⁵⁶⁾.

(12) 용광관(龍光館)

주요성격 활동사진상설관 / 개장(관) 1915년9월⁵⁷⁾. 그 밖의 사항 불명.

51) 岡良助 『京城繁昌記』 博文社, 1915년. p.512-p.513.

52) 「著名なる劇場及寄席」 石原留吉 『京城案内』 京城協賛会 1915년 p.297

53) 岡良助 『京城繁昌記』 博文社, 1915년. p.514.

54) 『京城日報』 1915년 9월 2일 2면

55) 『京城日報』 1915년 9월 26일 (4면). 「演芸案内」에 유락관 ‘신축낙성’이라고 되어 있다.

56) 『京城日報』 1915년 9월 26일 (4면).

57) 「演芸案内」 『京城日報』 1915년 10월 10일 (3면, 석간).

이 밖에 유락좌(有樂座, 남산정(南山町) 소재⁵⁸⁾), 사쿠라좌(佐久良座⁵⁹⁾)가 있으나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다.

2-3. 1920년대 경성의 일본인 극장

(1) 경성극장(京城劇場)

주요성격 연극장

개장(관) 1919년 9월 주식회사설립⁶⁰⁾

소멸 1929년 2월 화재로 인해 소멸. 경성연예관(1931)으로 바뀜

소재지 본정(本町) 3정목⁶¹⁾, 수정(壽町⁶²⁾으로 각각 소재지에 대한 기록에 혼란이 있으나 이는 지명의 변동으로 인하여 혼용한 것으로 추정됨.

규모 불명 / 극장주 후루키(古城菅堂)⁶³⁾⁶⁴⁾

특이사항 수좌(1907)에서 경성극장(1919), 그리고 경성연예관(1931)으로 변천되어 왔다. 한편, 임성구가 사동에 같은 이름의 경성극장을 설립하고자 했다는 기사가 있으나 이후 관련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산된 것으로 추정된다⁶⁵⁾. 그리고 1923년 6월에 김도산의 신극좌의 「人肉의 市」 「사랑업는 사람들」 공연을 한 바 있다⁶⁶⁾. 또한 영락정(永樂町)에 위치한 동명의 극장이 있었

58) 石原留吉 『京城案内』 京城協賛會 1915년, p.297

59) 『京城日報』 1915년 9월 2일(3면, 석간)

60) 『朝鮮銀行会社要録』 1921년.

61) 『동아일보』 1929년 2월 14일 (2면)

62) 青柳綱太郎, 「제21편 대경성의 오락기관」 『大京城』 朝鮮研究会, 1925년. p.552-p.556

63) 『朝鮮銀行会社要録』(1921년판-1929년판)에 의하면, (사장 대표)古城菅堂 (전무이사)村上幸次郎, (이사)釘本藤次郎, 梶原末太郎, 矢沢近次郎, 佐野彦蔵, 小川勝平, (감사)池田長兵衛, 三田政次郎, 椎木宇之助, 関繁太郎, 姫野亀吉. (대주주)滿鉄社友會富田重平(300), 朝鮮銀行行友會不破重兼(300), 東拓京城支店吉田英三郎(250), 三井物産三友俱樂部板井才吉(100), 殖産銀行行友會渡邊弥幸(100), 京城電氣会社共済會木本倉二(100), 姫野亀吉(100), 村上幸次郎(86), 五味安太郎(86) 등이 임원과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64) 후루키(古城菅堂)의 경력 및 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성 재계의 유력자이며 조선 의료계의 창시자. 1887년 인천공립병원장이 되어 조선으로 건너왔고 고향으로 돌아가 개업하였다가 1903년에 다시 조선으로 와서 경성의사회장, 경성거류민단민회의원, 거류민단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부제(府制)시행과 함께 경성부협의원, 경기도평의원 등에 추대되었다. 재계 방면에서는 각 회사 은행의 발기인이 되어 참여하였으며 조선화재, 조선취인소, 조선상업은행, 조선토지신탁, 殖銀 등의 주역에 취임하였다. 취인소 합병 때 적극 나서서 1935년 현재의 조선취인소(朝鮮取引所)를 설립하였다. 또 조선 박람회에서 협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였고 경성에서 京城医會 會長, 東洋生命保險会社 理事, 京城起業株式会社 社長, 實業銀行 頭取 등으로 재직하며 1921년 현재 鉦業에도 종사하였다.

65) 『매일신보』 1919년 12월 18일

66) 경성극장에서는 재○이십과일부터 동경 신극좌(新劇座-김도산이 임성구의 혁신단에서 나와서 만듬-필자)일행이 조선신문사 후원 하에 공연을 하였는데 예제는 「人肉의 市」 「사랑업는 사람들」 등 여러가지 참신한 것으로 매오 평판이 쏠타더라. 「新劇座」 開演, 조선신문 후원으로」

을 가능성이 있다⁶⁷⁾. 1926년 5월에 일본의 흥행단 덴쇼일행(天勝一行)의 공연이 있었다⁶⁸⁾. 1929년 2월 화재로 극장 소실되었으나 재건하여 1930년 3월 경성연예관이 되었다⁶⁹⁾.

(2) 개성좌(開盛座)

주요성격 연극장

개장(관) 1917년으로 추정⁷⁰⁾ / 소멸 불명

소재지 용산 영정(榮町)⁷¹⁾ / 규모 불명

극장주 가토 긴타로(加藤金太郎)⁷²⁾

특이사항 용산에서 유일한 극장으로 설립 당시부터 관객들에게 평가가 좋고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⁷³⁾. 1925년 12월에는 경성여자보화학원(京城女子補化學院)이 주최하는 음악, 무도, 연극회를 개최했다. 이때 연극은 「희망의 눈물」 2막, 「허영」이라는 사회극이 상연되었다⁷⁴⁾.

『동아일보』 1923년 6월 30일 3면)

67) 藤井亀若 『京城の光華』 朝鮮事情調査会 (한국지리풍속지총서252), 1926년, p.94

68) 「天勝一行京劇興行」 일본 송옥재턴승(松旭齋天勝) 일행은 금 십삼일밤부터 시내 수팅(壽町) 경성극장(京城劇場)에서 행연한다는데 작년에 동 일행이 미국에 가서 순연을 하여 적지안이한 환영도 바닷으며 더욱이 그 순연중에 여러 가지 새로운 기마술재료와 및 연극 각본 등도 만히 어드스며 미구인 여자 세명과 남자 일곱명을 동 단에 가입시키어가지고 음악은 순전히 미구인들이 마터하게 되엇으며 동 미구녀자 중에는 스단스 혹은 독창으로 미구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가진 사람도 잇다하며 (중략) 경성극장 흥행은 열흘동안 인바 그 흥행을 마치고는 조선사람관객 중심으로 북촌에 와서도 흥행을 하라고 한다더라. 『동아일보』 1926년 5월13일 5면)

69) 「불탄 넷자리에 京城劇場 再建」 『동아일보』 1930년 3월 1일 5면.

70) 「용산 73」 『경성부 정내지 인물과 사업안내』 국편, 1921년.

71) 1920년대 경성의 극장에 관한 내용은 有賀信一郎의 『大京城』을 많이 참조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면, 서문 朝鮮毎日新聞社, 편찬자 有賀信一郎, 발행자 朝鮮毎日新聞 조사부이며, 인쇄는 요시오카(吉岡)인쇄소로 총 533쪽 분량의 책이다.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1개괄, 2교통운수, 3통신, 4교육종교, 5위생, 6 금융, 7 공산업, 8 특산물 및 토산품, 9 상업, 10 동력조명상수도, 11 보험, 12빌딩 및 여관, 13 사회시설, 14 운동오락, 15 환락지대, 16 부내 및 교회의 유람, 17 조선내 명소 유적, 18 조선의 풍습, 19 구매처 안내, 부록 조선박람회. 목차에서도 짐작하듯이 1920년대 말까지의 경성의 각 산업분야 및 문화, 오락 분야에 이르는 광범위한 경성 안내서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72) 1864년생. 도쿄 출신 1904년 철도원으로 만주에 파견 1년 후 일본으로 돌아와 1905년 다시 만주로 건너가서 철도원 제1건축반 조장으로 4년정도 근무하다가 일본을 귀국. 이후 경성으로 와서 1908년 길야정(吉野町)에서 요정을 개업했다고 한다. 1917년에 이르러서는 현재의 개성좌와 관련 일을 시작한 것을 보인다. 『경성인물』 「용산 73」 『경성부 정내지 인물과 사업안내』 국편, 1921년.

73) 용산 73」 『경성부 정내지 인물과 사업안내』 국편, 1921년.

74) 「무도연극 보화학원(補化學院) 주최 용산 개성좌에」 시내 가회동에 잇는 경성녀자 보화학원의 장래 유지방침에 대한 후원회에서 동 학원의 경비의 만일의 보조라도 엿기위하여 룡산(龍山) 일대 청년단체의 후원을 어더 십사일 오후 일곱시에 시내 룡산 개성좌(開盛座)에서 음악 무도 연극회를 개최하리라는데 그 순서 중에는 아귀자기한 소년소녀들의 무도와 일류 음악가들의 양금 오현금 등이 잇는 외에 『희망(希望)의 눈물』 이 막과 『허영(虛榮)』 이란 두 막의 사회극이 상장되리라

(3) 용산극장(龍山劇場)

주요성격 연극장 / 개장(관) 불명 / 소멸 불명

소재지 한강동⁷⁵⁾ / 규모 불명 / 극장주 불명

특이사항 조선인 철도국 직원을 위한 위안행사를 용산극장에서 개최했다는 기록이 있다⁷⁶⁾. 용산극장의 일본인 전속배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⁷⁷⁾. 1935년 5월에 일본 극단이 초청되어 용산극장에서 공연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930년대에 이르러서도 연극장으로써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⁷⁸⁾.

(4) 낭화좌(浪花座)

주요성격 연극장

개장(관) 1920년 11월⁷⁹⁾ / 소멸 불명

소재지 본정 5정목 16번지⁸⁰⁾ / 규모 불명 / 극장주 고토(後藤卓三)⁸¹⁾

특이사항 1930년대에 조일좌로 바뀜. 1922년 본정 낭화좌에서 인력거꾼들이 조합 총임원회를 개최.⁸²⁾

(5) 낭화관(浪花館)

주요성격 요세⁸³⁾, 활동사진상설관⁸⁴⁾

개장(관) 불명 / 소멸 1940년대까지 존재

소재지 명치정(明治町)⁸⁵⁾ / 규모 불명 / 극장주 마쓰다(松田正男)⁸⁶⁾

는데 입장료는 청권(靑券) 삼십 전과 백권(百券) 사십 전이라더라. 『동아일보』 1925년 12월15일, 5면 「연예」란.

75) 有賀信一郎, 『大京城』, 朝鮮毎日新聞 調査部, 1929년, p.345

76) 『중외일보』 1929년 10월 17일 조간 3면

77) 「술 먹고 暴行 漢江通 龍山劇場俳優 餅搗龜夫氏」 『동아일보』 1934년 12월 2일 조간 2면.

78) 부내 한강동 12번지 룡산극장에서는 현재 일본 최초의 녀변호사재판극단이란 연극단체가 와서 흥행중인데 일본에는 현재 녀변호사가 업는데 불구하고 허위로 문구를 과장하야가지고 광고를 한다는 리유로 룡산서에 고발되어 27일 동 극단의 대표자 지하일(志賀一)(49)이 호출되어 취조를 맞는 중이라 한다. 「誇大廣告한 劇団 고발되어 취조중」 『조선중앙일보』 1935년 5월 28일 조간 2면.

79) 『경성인물』, 옥정 22.

80) 『경성인물』, 옥정 22.

81) 1878년 출생. 효고현 출신. 젊은 시절 대만으로 건너가 신문 사업을 하다가 만주에서 사업을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않아 1918년8월 경성으로 옮. 경성권번전속 오키야(置屋)를 운영하였고 1919년에는 본정 1정목에서 양산제조업을 운영하다가 1920년11월부터 낭화좌를 신축하여 경영하게 되었다. 『경성인물』, 옥정 22. 참조

82) 『동아일보』 1922년 11월 23일 3면.

83) 青柳綱太郎 『大京城』 朝鮮研究会, 1925년 p.555

84) 「赤手空拳으로 成功한 商界人物」 (삼천리 제7권 제8호 1935년 9월 1일)에서는 낭화관을 활동사진관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이사항 1941년 기록에 의하면 소노다상회(園田商會)의 직영관으로 되어있다. 동 회사의 직영관으로 이 밖에 광무관, 유락관(遊樂館, 원산), 청주극장(청주), 대구극장(대구)이 있었다⁸⁷⁾.

(6) 희락관(喜樂館) *사진

주요성격 활동사진상설관

개장(관) 1920년 설립⁸⁸⁾. 1916년 경 주식회사 / 소멸 1940년대까지 존재.

소재지 본정(本町) 1정목 / 규모 불명

극장주 마쓰다(松田正雄)⁸⁹⁾. 마시마(間島梅吉)⁹⁰⁾

특이사항 1928년 12월 닛카쓰(日活)의 직영관. 한 달에 10여편의 영화를 상영. 희락관은 원래 만주국활동사진주식회사가 창설하여 처음에는 유락관(有樂館)이라는 명칭이었으나 1920년 희락관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영화회사 닛카쓰(日活)가 매수하였다. 그 후 1928년 12월부터 닛카쓰의 직영으로 바뀌면서 크게 혁신을 맞게 되었다. 즉, 자릿세(座布団代)를 폐지하고 관람료를 저렴하게 하고 관내 설비를 완비하였으며 10여명의 안내 직원을 두어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활동사진 변사로 櫻田耕作, 花葉少洋, 花山芳美 등의 유명 변사가 활동하였다고 한다⁹¹⁾.

(7) 동아구락부(東亞俱樂部)

주요성격 활동사진상설관

개장(관) 1928년 4월⁹²⁾ / 소멸 불명

소재지 황금정 4정목 / 규모 불명

극장주 도쿠나가 구마이치로(徳永熊一郎).

특이사항 원래 황금관(黃金館)에서 명칭이 바뀜. 동아구락부는 1922년 9월에 경성(영락정(永樂町))에 진출한 도쿠나가 상회(徳永商會)의 직영관이다. 1928년 4월에 동아영화와 제휴하고 만주와 조선에서의 영화배급권을 확보하였고 이후 동아(東亞)와 가와이(河合) 영화의 개봉을 목적으로 하였다⁹³⁾.

85) 石原留吉 『京城案内』 京城協賛会 1915년 p.297

86) 長野末喜 『京城の面影』 京城内外事情社, 1932년

87) 『昭和17年朝鮮年鑑』 1941년, p.600.

88) 有賀信一郎 『大京城』 1929년, p.351

89) 有賀信一郎, 『大京城』, 朝鮮毎日新聞 調査部, 1929년, p.351

90) 『昭和17年朝鮮年鑑』 1941년, p.600.

91) 같은 책, p.351

92) 「府内の活動写真館」 有賀信一郎 『大京城』 1929년, p.352

93) 같은 책, p.350

(8) 중앙관(中央館)

주요성격 활동사진상설관 / 개장(관) 불명 / 소멸 불명

소재지 영락정 1정목 / 규모 1500명 / 극장주 후치모토(藤本省三)

특이사항 마키노사, 파라마운트사의 영화를 배급. 조선활동사진주식회사 소속이다. 활동사진 이외에 재즈 댄스 공연을 행하기도 한다⁹⁴⁾.

(9) 대정관(大正館)

주요성격 활동사진상설관 / 개장(관), 소멸 불명

소재지 앵정정(櫻井町) / 규모 불명 / 극장주 후쿠자키(福崎)

특이사항 쇼치쿠(松竹)와 제휴하여 공동경영하며 개봉영화도 쇼치쿠의 작품이 중심이다⁹⁵⁾.

(10) 경룡관(京龍館)

주요성격 활동사진상설관 / 개장(관) 1922년 / 소멸 불명

소재지 연병정(練兵町) / 규모 불명 / 극장주 이시하라 이소지로(石原磯次郎)

특이사항 닛카쓰(日活) 작품 중심.

이 밖에 시민관(市民館)이 있었으나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⁹⁶⁾. 무川이 직영하는 황금관(활동사진 상설관)이 1910년대에 이어서 존재하였으므로 약 11개의 극장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4. 1930년대 경성의 일본인 극장

(1) 경성연예관(京城演藝館)

주요성격 연극장, 활동사진상설관

개장(관) 1931년9월⁹⁷⁾ *경성극장 소실 후 재건하여 명칭을 바꿈⁹⁸⁾.

소멸 불명 / 소재지 본정(本町) 2정목 / 규모 500명

극장주 후루키(古城菅堂)⁹⁹⁾, 와케지마(分島周次郎)¹⁰⁰⁾, 이케다(池田長兵衛)¹⁰¹⁾

94) 같은 책, p.353

95) 같은 책, p.350

96) 요세 한강통 위치.

97) 『동아일보』 1931년 9월 12일

98) 長野末喜『京城の面影』京城内外事情社, 1932년

99) (대표)古城菅堂, (이사)釘本藤次郎, 梶原末太郎, 左野彦藏, 小川勝平, (감사)池田長兵衛, (지배인)山崎鹿藏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1931년판)

100) 長野末喜『京城の面影』京城内外事情社, 1932년

특이사향 수좌(1907년 이전)에서 경성극장(1919), 그리고 경성연예관(1931)으로 변천해 왔다. 경성연예관의 설립일이 1919년 9월21일로 되어있어서 경성극장의 후신임을 알 수 있다¹⁰²⁾.

(2) 조일좌(朝日座)

주요성격 연극장

개장(관) *낭화좌를 개축하여 이름이 바뀜¹⁰³⁾. / 소멸 불명

소재지 본정(本町) 5정목¹⁰⁴⁾ / 규모 불명 / 극장주 오이시(大石貞七)¹⁰⁵⁾

특이사향 낭화좌(1920)에서 조일좌로 그리고 장안극장(長安劇場 1946)으로 변천해 왔다¹⁰⁶⁾¹⁰⁷⁾. 1936년 4월 만주를 경유하여 조선으로 흥행을 하던 일본극단 천승일행(天勝一行)이 조일좌에서 공연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¹⁰⁸⁾.

이상의 극장 이외에 1920년대부터 있던 개성좌(開盛座 용산), 용산극장(한강통) 등이 그대로 있고, 미나토座(종로5) 등이 새롭게 생긴 것을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¹⁰⁹⁾. 1930년대에는 조일좌, 경성연예관, 개성좌, 용산극장, 미나토좌, 낭화관 등 5개의 극장(연극장 및 요세)이 있었고 활동사진관은 1920년대에 이어 희락관, 중앙관, 동아구락부, 대정관, 경륜관 5개가 존재했다¹¹⁰⁾.

2-5. 1940년대 경성의 일본인 극장

(1) 경성극장2

주요성격 활동사진상설관

101) (사장) 池田長兵衛 (이사)山崎鹿藏, 梶原末太郎, 大宮貞次郎, 成清竹松, (감사)佐野彦藏, 松永定次郎, 小川勝平, (대주주)分島周次郎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1933년판)

102)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1931년판.

103) 長野末喜 『京城の面影』 京城内外事情社, 1932년

104) 長野末喜 『京城の面影』 京城内外事情社, 1932년

105) 田中組(토목건축 회사)의 사원.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東亜經濟時報社, 1931년.

106) 1946년 長安劇場으로 改称 朝日座의 새 出賃 「学芸消息」 『동아일보』 1946년 1월16일 석간 2면.

107) 朝日座 崔礼得 충무로 (『經濟年鑑』 1949년판)

108) 「天勝一行俳優中에 天然痘患者五名」 5일 오후 부내 본정(本町) 5정목 조일좌(朝日座)에서 흥행 중인 이대(二代) 천승일행(天勝一行)의 배우로 있는 계목옥치(桂木玉治)(28) 김판산(金判山) 전 중신영(田中信榮)(21) 각미애자(角尾愛子) 등 남녀배우 다 셋명치 진성천연두(眞性天然痘) 환자로 판명되어 곧 그들을 순화원에 입원시키는 동시에 일행 六十명에게 예방주사가 준 다음 흥행까지도 임시 중단하였는데 그들 일행은 만주국 신경(新京) 봉천(奉天) 열하(熱河) 등을 거쳐서 평북 신의주(信義州)를 비롯하여 수 개처를 경유하여 三월 三十一일에 입경한 점으로 보아 전염계통은(후략) 『조선중앙일보』 1936년 4월 7일 석간 2면.

109) 長野末喜 『京城の面影』 京城内外事情社, 1932년.

110) 有賀信一郎, 『大京城』, 朝鮮毎日新聞 調査部, 1929년, p.345

개장(관) 1939년 10월 재개관¹¹¹⁾ 112) / 소멸 불명

소재지 불명 / 규모 800명 / 극장주 불명

특이사항 신흥키네마의 봉절관(封切館)¹¹³⁾

(2) 명치좌(明治座)

주요성격 활동사진상설관 / 개장(관) 불명 / 소멸 현존하는 유일한 극장

소재지 명치정 2정목 / 규모 600석 / 극장주 불명

특이사항 쇼치쿠(松竹)의 봉절관이었으며 현재의 명동국립극장으로 유일하게 극장의 외형이 당시의 모습에 가깝게 남아있다.

(3) 동보약초극장(東寶若草劇場)

주요성격 활동사진상설관 / 개장(관) 불명 / 소멸 불명

소재지 약초정(若草町) / 규모 불명 / 극장주 불명

특이사항 동보(東寶)영화사의 조선 제1봉절관이다.

서울 경기 지역 소재 극장이 경성에 명치좌, 동보약초영화극장, 경성보충극장, 경성극장, 동보중앙영화극장, 희락관, 대륙극장, 경일문화영화극장, 화신영화관, 낭화관, 도화극장, 경통관, 신부좌(광무극장, 제일극장, 우미관, 동양극장-조선인 경영), 인천에 애관, 인천동보극장, 표관, 개성에 개성좌, 수원에 수원극장, 안성에 애국극장 등, 총 약 50개 정도 존재했음을 당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¹¹⁴⁾

3. 재조 일본인의 문화형성에서 ‘극장’의 의미

경성의 일본인 극장의 형성과 소멸 과정에서 극장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상황의 변화와 각 시기별 상징적인 극장의 설립과 소멸이라는 점을 중시한다면

111) 「경성극장 今秋부터 新興封切館으로」 일직이 再築中에잇던 府内 京城劇場은 오는 十月中旬 改築을 (중략) 八百人劇場으로서 데뷔하게되엇다 右는 新興키네마의 作品封切館으로 開館할터이오 이 外에 新興專屬演芸部員들이 映○外에 出演할 予定으로 開館이 期待되고 있다. 『동아일보』 1939년 8월 31일 석간 5면

112) 「新興封切館으로 京城劇場 開館」 개축공사가 완성된 경성극장(京城劇場)은 그간 신청 중이던 상설영화관(常設映画館)으로서 인가도 되겠으므로 一일부터 四일까지는 동보극단(東寶劇團) 일행 백 여명의 출연으로 개관(開館), 五일부터 신흥(新興)키네마 조선 제1봉절관(封切館)으로 본격적 흥행에 들어설 모양이다. 이에 앞선 三十일은 피로초대관극회(披露招待觀劇會)를 개최한다는바(후략) 『동아일보』 1939년 9월29일 석간 5면.

113) 「경성극장 화재 영상 중 대소동」 (동아일보 1940년 1월 7일 석간 2면)

114) 『昭和17年朝鮮年鑑』 1941年, p.596.

1910년대에는 수좌, 1920년대에는 경성극장, 그리고 1930년대에는 경성연예관을 각 시대의 상징적인 극장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경성의 일본인극장 건설의 초창기에 해당하는 1906년에서 1910년까지의 시기에는 가부키좌와 수좌와 같은 대표적인 극장이 경성의 연극, 연예계를 장악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대략 16 개의 극장이 경성에 존재했다. 5년 간의 짧은 시기에 이토록 많은 극장이 일시에 건설되었음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며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다라도 1900년대 중반에서 1910년대 초반까지의 경성의 극장 건설의 열풍은 대단하였고 특히 공연 레퍼토리에서도 매우 자유로운 풍조를 엿볼 수 있다. 특히 공연 레퍼토리의 특징적인 것은 다종의 공연형태(연극, 활동사진, 나니와부시, 강연회, 연주, 마술—다이도게 등)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는 점은 일본 내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한 문화의 표현의 ‘혼종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¹¹⁵⁾. 경성 극장 변천사에서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가장 우려할 만한 일은 극장화재였다. 대표적으로 1909년의 본정좌, 1929년 경성극장의 화재는 극장이 소멸하는 계기가 되었다.

1910년대에 들어서면 대표적으로 수관과 어성좌에서 활발하게 극장공연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기는 한일합방 이전에 건너온 일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새롭게 식민지로 건너오는 이들 소위 ‘신도래자(新渡來者)’를 위하여 극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시기이다. 특히 문화적으로는 나니와부시(浪花節)의 유행이 현저하게 나타나 대중문화 지형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극장 성격에도 다양성이 생겨나 연극장이외에 요세와 활동사진상설관의 분립이 뚜렷해졌고 경성에만 6개의 연극장과 1개의 요세와 5개의 활동사진상설관이 존재했다.

1920년대에는 대표적으로 경성극장과 경성연예관이 주목할 만한 극장공연을 하였다. 이 시기는 1920년대 총독부의 문화정치와 극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식회사로의 전환과 대표적인 극장들의 극장주의 교체와 같은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아울러 1930년대에서 1945년 해방 시기에는 극장에서의 쇼치쿠(松竹), 도호(東宝) 등 대기업의 독점적인 진출과 연극장의 쇠퇴 등이 특징적인 흐름이 나타나는데 무엇보다 활동사진관이 경성의 극장가를 장악하게 된다.

내지인을 위한 것으로 제국키네마가 직영하는 황금관, 동아키네마의 중앙관, 쇼치쿠(松竹)키네마의 대정관, 닛카쓰(日活)직영의 희락관, 이상 네 곳이 있다. 모두 연중 거의 만원사례로 대성황을 이루어 시대를 만난 활동사진이 내지에서도 다른 모든 흥행물을 몰아내어 홀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듯 경성에서도 현재 활동사진의 유행은 절정에 달하여 각 계급의 관람객들이 몰려드는

115) 참고 「1910년 전후 서울에서 활동한 일본인 연극과 극장」 (『일본학보』 56/2, 2003년).

상황이다. 이러한 경향은 경성의 내지인 뿐 만아니라 조선인 사이에서도 매우 성행하여 지금은 완전히 활동왕국의 상태가 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경영자들은 싱글벙글이다¹¹⁶⁾.

위의 인용에서 보듯 1930년대 들어서면 경성의 일본인 극장의 총 흥행일수는 연 1,000일을 넘겼으며 입장인원은 85만 명, 하루 평균 입장인원수는 100인 이상 증가폭을 보였다고 한다¹¹⁷⁾.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활동사진상설관이였다. 1930년 6월 현재 영화관 조선전국에 42개(경성에 9개), 대만 10개, 만주 16개, 상해 2개 이다¹¹⁸⁾.

그런데 이러한 경성의 극장들을 건설한 주체들의 기본적인 성격은 어떠한가. 앞서 인용한 경성거류민단장 후루키(古城菅堂)는 경성극장의 사장으로 유력한 인물이 되었다. 그의 이력을 보면 특이하게도 조선 의료계의 창시자라고 한다. 후루키의 최초 조선도향의 시기는 1887년, 인천공립병원장으로써 조선에 건너왔으며 일시적으로 일본에 돌아가 개업했다가 러일전쟁 당시인 1903년에 다시 조선으로 와서 경성의사회장, 경성거류민단민회의원, 거류민단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 밖에도 그는 굵직한 관직에 몸담게 되는데 1910년 이후 부제(府制)의 시행과 함께 경성부협의원, 경기도평의원 등에 추대되었다. 한편 재계 방면에서 그의 활약은 더욱 두드러져 조선의 각 회사 은행의 발기인이 되어 참여하였으며 조선화재, 조선취인소, 조선상업은행, 조선토지신탁, 식산은행 등의 주역에 취임하였다. 취인소 합병 당시 적극 나서서 1935년의 조선취인소(朝鮮取引所)를 설립하였다. 조선 박람회 당시에는 협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였고 1921년에는 광업에 종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재조선 일본인사회의 거물이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경성의 일본인 극장주 가운데 또 주목해야 하는 인물은 다무라(田村義次郎)이다. 그는 1860년 도쿄 출신이며 1887년 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장성(大藏省) 공무원으로써 청일전쟁(1894) 당시 만주각지에 파견되어 경제 재정 문제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적이 있는 ‘제국’의 중북인 셈이다. 그가 식민지와 처음 인연을 맺은 곳은 대만이었는데 1895년 오사카(大阪) 중립은행(中立銀行)의 대만지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대만에 건너왔고 이후 오사카 중립은행의 대만지점 총지배인에 선발되었으며 은행합병 사업의 실패로 1896년 사직하였다. 다시 1900년 소에다(添田) 박사의 초청으로 대만은행 창립에 참여, 1904년 9월까지 대만에 체제하였다. 그러다가 어떠한 이유에선지 1904년 10월 경성

116) 青柳綱太郎『大京城』朝鮮研究会, 1925년 p.555.

117) 長野末喜『京城の面影』京城内外事情社, 1932년

118) 『第4回日本映画事業総覧』, 内外映画事業調査研究所, 1930년, p.599-p.601.

에 들어오게 되었다. 다무라가 경성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은 흥미롭게도 ‘전당포업’이었다. 나중에는 토지가옥 경영(부동산업)으로 사업을 확대하였고 한편 경성거류민단의 세제조사위원, 경성거류민단의 민단장을 두루 역임하는 등, 그 역시 재조선 일본인사회의 거물로 성장하였다. 특히 그는 1912년 경성의 황금정에 ‘황금유원’이라는 테마파크를 설립하였는데 그 내부에 황금연예관과 연기관이라는 극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경성의 문화시설, 오락시설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경성의 극장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¹¹⁹⁾

끝으로 1917년경 개장한 개성좌의 극장주 가토 긴타로(加藤金太郎)이다. 그는 1864년생, 도쿄 출신으로 1904년 철도원으로 만주에 파견된 후 1년만에 일본으로 돌아왔고 1905년 다시 만주로 건너가서 철도원 제1건축반 조장으로 4년 정도 근무하다가 귀국했다. 이후 1908년경 경성으로 와서 처음에는 길야정(吉野町)에서 요정을 개업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17년에 이르러서는 현재의 개성좌 관련 일을 시작한 것을 보인다¹²⁰⁾.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극장을 설립하였는가. 다음 인용문에서 극장 건설의 주체인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

경성은 날로 발전하고 조선인의 경성은 이미 과거이고 그야말로 내지인의 경성이 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오락기관의 증설 또한 필요해져 유지자들 사이에서 경성의 중심지역인 명치정(明治町) 1정목에 신극장 건축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1914년 그러한 내용의 허가를 얻어 정원 2천 명 규모의 대극장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고, 이 일을 주선할 인물로서 흥행계에 잘 알려진 사쿠라이(櫻井丈太郎) 씨와 그의 아들 히메야(姫野龜吉) 씨가 맡아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여 공진회(1915년9월-필자)까지는 완성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 극장의 준공일은 경성 최고의 위관을 얻는 날이 될 것이다¹²¹⁾.

식민지 도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정신적 안식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오락기관’의 증설이 너무나 절실하다는 점이 경성의 유지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조선공진회의 시기에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경성 흥행계의 ‘사쿠라이’라는 부자의 활약 등, 당시 경성극장 설립배경에는 식민지 도시의 ‘오락기관’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로서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락기관에 대한 필요성은 비단 극장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다음의 인용에서 보듯이,

119) 『실업인명』 106, 『신사명감』 204

120) 『경성인물』 「용산 73」 『경성부 정내지 인물과 사업안내』 국편, 1921년.

121) 岡良助 『京城繁昌記』 博文社, 1915년, p.514

문명적 도시의 이상은 도시를 향락적인 거리로 만듦에도 계획적으로 설비를 만들지 않으면 도시생활 본래의 사명을 다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 시민의 오락, 위안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사용되고 있는가, 예를 들면 공원과 공중의 놀이장소, 극장, 음악당, 연주당, 박물관, 동식물원, 운동장 등을 위하여 해마다 놀라울 정도의 예산이 상정되고 있는 것이다. (중략) 이들 고상한 기관에서 보고 듣고 즐기는 사이에 지식을 넓히고 취미를 고상하게 하며 품성을 도야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종일의 활동에 지친 시민이 위안오락의 장소를 찾는 당연한 요구를 채우는 기관으로서 도시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¹²²⁾.

고 하였다. 이와 같이 경성이라는 도시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위안오락의 장소’가 구체적용 거론되었고, 극장이외에 공원과 놀이장소, 음악당, 연주당, 박물관, 동식물원, 운동장 등이 도시의 새로운 경관을 예고하고 있었다. 제국의 식민자들은 낯선 ‘외지’에서의 정착이라는 정신적 부담과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위안과 즐거움과 ‘내지’에 대한 향수를 달랠 오락물이 절실했다.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듯 이 시기의 극장 설립의 열기가 매우 고조되었던 것이다.

4. 맺음말

식민지시대 경성의 일본인 극장은 어떠한 문화적 비중을 차지하였는가. 문자해득력을 갖추지 못한 대중에게, 그리고 오늘날과 달리 미디어의 발전이 충분하지 않았던 당시의 ‘극장’은 다른 다양한 미디어를 대신할 만한 중요한 문화매체였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이 시기 문화의 결정적인 요소인 ‘자본’과 제국의 ‘문화권력’의 영향 하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극장이란 공연과 영상을 담아내는 문화적 공간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근대시기에는 그것에 제한되지 않았다. 당시의 극장은 공연, 영화 상영을 통해 지역민의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관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강연회, 집회 등이 개최되는 공론 장(場)으로서 지역문화의 근거지이자 여론과 의제를 선도하는 공간이었다.¹²³⁾

경성에 생겨난 일본인 극장은 ‘신도래자’들이 만들어낸 문화공간이었고 그곳

122) 青柳綱太郎 『大京城』 朝鮮研究会, 1925년 p.552-p.553

123) 이승희 「공공 미디어로서의 극장과 조선민간자본의 문화정치」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학술발표회 자료), 2009년, p.45-p.47.

은 ‘제국’의 문화적 파장의 경계를 넘나들며 균질성과 비균질성의 긴장을 야기하는 영역이 되었다. 그리하여 경성의 ‘신도래자’들은 경성의 남부지역에 일본인 거주지역을 형성하였고 일본식 지명을 붙였으며 극장건물을 지었고 그곳에서 연극과 활동사진을 관람하였다¹²⁴⁾. 본고에서 일본인 극장의 형성과 변천과정, 일본인 연극의 실체에 주목한 이유는 ‘제국일본’의 문화 권력이 극장의 영역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밝힘으로써 제국 팽창의 역사에서 문화가 담당했던 역할과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함이다. 이 때 극장을 ‘극장—권력(Theater-Power)’¹²⁵⁾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를 통해 발신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표현, 그리고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생활세계 전반을 통틀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극장이 무대와 관객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서 태생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본론에서 규명한 경성의 일본인극장들의 공연 무대에서 펼쳐진 구체적인 문화표현들에 관한 텍스트 연구를 향후 과제로 남겨놓고 있다.

124) 주(36) 참조.

125) 박노현 「극장의 탄생—1900-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19집, 2004년, p.14.

【参考文献】

- 유민영(1998) 『한국근대극장변천사』, 태학사, p.21-p.182
홍선영(2003) 「1910년 전후 서울에서 활동한 일본인 연극과 극장」 (『일본학보』 56/2)
박노현(2004) 「극장의 탄생—1900-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19집,
p.12-p.13.
다카사키 소지 저, 박규수 역(2006) 『식민지조선의 일본인들』 역사비평사, p.3
박노홍(2008) 「한국극장사」 (김의경, 유인경 편 『박노홍의 대중연예사』 1, 연극과 인간,
p.150
岡良助(1915) 『京城繁昌記』 博文社, p.510
石原留吉(1915) 『京城案内』 京城協贊會 p.297
靑柳綱太郎(1925), 「제21편 대경성의 오락기관」 『大京城』 朝鮮研究會, p.552-p.556
後藤慶二(1925) 『日本劇場史』 岩波書店, p.51
藤井龜若(1926) 『京城の光華』 朝鮮事情調査會 (한국지리풍속지총서252), p.94
有賀信一郎(1929), 『大京城』, 朝鮮毎日新聞 調査部, p.345
内外映畫事業調査研究所(1930) 『第4回日本映畫事業總覽』, p.599-p.601
長野末喜(1932) 『京城の面影』 京城内外事情社, p.135
朝鮮年鑑刊行會(1932), 「道別興行一覽表」 『朝鮮年鑑』, p.468.
朝鮮年鑑刊行會(1942) 『昭和17年朝鮮年鑑』, p.596.
菅孝行(2004) 「리얼리즘의 의미·차이의 해소·다양화」 『演劇人』 17호(무대예술재단연극인
회의) p.178
加藤幹郎(2006) 『映畫館と觀客の文化史』 中央公論, p.210-p.211

要 旨

植民地時代の京城における日本人劇場はどのような文化的位置を占めたのであろうか。文字解得力のない大衆やメディアの發達が十分でなかった当時の「劇場」というのは、他のメディアのなかでも最も重要な文化媒体であった。このような性格によって劇場は必然的に「資本」と帝國の「文化權力」の影響の下に存在するしかなかった。

演劇研究において劇団、公演レパートリー、上演作品のテキスト研究など多様なアプローチが可能だが、本稿では特に「劇場」という空間—建築物としての劇場—に焦点を当て近代メディアの主な部分として再照明しようとした。さらに日本人劇場の形成と変遷の過程に注目し、「帝國日本」の文化權力が劇場の領域でどんなに具現されたのか、また帝國膨脹の歴史のなかで文化が担当した役目とその實態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試みた。そのために京城における日本人の劇場を取り囲む多様な文化表現の生成とその過程を明らかにした。そこで「劇場」を帝國權力の文化的波長の中、様々な文化的躍動性が生成される空間として把握し、帝國日本の核心的な近代メディアとして登場したのである。結局、京城における日本人劇場は、「新到來者」らが作り出した文化空間である。そこは「帝國」の文化の境界を出入りし、均質性と非均質性の緊張を引き起こす領域となった。そして京城の南部地域に日本風の劇場名を付けた劇場には演劇と活動寫眞が上演され、様々な文化移動の場所として成立していた。

키워드 : 제국일본, 문화권력, 식민지도시, 극장, 일본인 극장, 문화매체,
관객, 문화이동, 균질성, 혼종성

투 고 : 2009. 8. 31
1차 심사 : 2009. 9. 12
2차 심사 : 2009. 9. 26